

교수강의평가 실시사례

7

교수강의평가 연재를 마치며

이 용 남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1. 서 언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교수 강의평가 사례를 여섯 번에 걸쳐 살펴 보았다. 대학 당국 스스로가(한신대의 경우) 솔선해서 하기로 한 경우도 있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한 경우도(경희대의 경우) 있었다. 그 외에 단과대학 수준에서(영남대 상경대학의 경우), 학과별로(전남대 경영학과의 경우) 또는 교수 개인별로도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의 우리나라 대학들의 추세를 보면 학생들이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 이는 확대되어 갈 추세이다. 어떤 곳에서는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하여 확대 실시를

교수강의평가 실시사례

1. 한신대학의 교수강의 평가제
2. 경희대학의 교양과목 중심 강의평가제
3. 영남대 상경대학의 강의 평가
4. 전남대 경영학과의 강의 평가제 모색
5. 강의평가를 실시하면서 : 개인별 사례(1)
6. 강평의 실효성과 문제점 : 개인별 사례(2)
7. 교수강의평가 연재를 마치며

서두르는 곳도 있고, 교수들의 할 일로서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도입하는 곳도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고 대세가

그러니까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선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그 배경이나 의의, 더 나아가 그것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내지 전망을 살피고 도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연재를 마치는 글로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몇 가지 느낀 바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교육평가의 오해

1) 강의평가(?)

필자가 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교수개발 워크숍에 몇 차례 강사로 초청받아 참가할 때마다 신임 교수들에게서 받은 질문이나, 얼마 전 지방 모 대학

의 교수 연수회에 연사로 초청 받았을 때 받은 똑같은 질문의 하나는 '授業'과 '講義'의 차이가 무엇이나였다. 또 어떤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그에 대해 답하겠다고 하면서, 수업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시간에 하는 일이고, 강의는 대학에서 시간에 하는 일을 말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기야 大教協의 이 연재들도 계속해서 강의평가라 해왔고, 필자가 소속한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계획서'나 '강의평가'니 하는 말을 써 오고 있다. 따라서 강의란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가 시간에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올바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개념 정립부터 시급하다 하겠다. 엄격히 말해서 '수업'이란 초·중·고·대의 학교급에 관계 없이 교사나 교수(넓은 의미에서 교수도 교사다)가 시간 중에 하는 일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강의'란 여러 가지 수업 방법 내지 교수법의 하나이다. 교수법에는 강의 외에도 토의, 문답, 개인지도, 실험 및 실습, 인간주의 방법 등 다양한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가 수업을 대체해 버린 것은 그 만큼 대학의 수업이 강의의 일변도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강의계획서나 강의평가니 하는 어휘보다

는 수업계획서나 수업평가니 하는 말이 더 온바르므로 그렇게 써야 한다고 본다. 강의계획서나 강의평가라는 말은 다양한 대학 수업의 과정을 너무 제한해 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

2) 교육평가의 진의

흔히 교육평가라 하면 학생들에게 시험보이고 나서 체점하여 점수나 학점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평가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평가이므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교육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일 뿐 아니라 교육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은 교사나 교수가 하는 것이지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학생은 교육 받는다), 교육평가는 교사나 교수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지 학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평가가 학생의 평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사나 교수가 교육 행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교육평가의 원래 취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해 교사나 교수가 어느 정도 잘 가르쳤는지 책임을 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평가는 위와 같이 교사나 교수의 교육행위인 수업의 성공여부를 학생들의 학업성

취 정도에 의해 판단하는 간접적 접근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초기의 교육평가 이론이 택했던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생의 학습 정도에 초점을 두어 그것의 향상에는 공헌했지만 교육평가를 학생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육평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바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사나 교수의 교육행위, 즉 수업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교사나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 수업시간을 채우고 나왔다고 해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교육을 직접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딘가 잘못된 곳이 있다는 뜻이다. 교사나 교수 자신이 정말 수업을 잘했는지 학생들의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 수업평가의 근본 취지이다.

그러나 교육평가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간접적 직접적 접근방법들은 협의의 교육평가라면, 광의의 교육평가는 교육프로그램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란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비하는 교육목적, 교육과정, 수업·연구·사회봉사·교육시설·설비, 그리고 교육행정·

제정적 지원 체계에 대한 양적·질적 종합적 평가를 말한다.

이와 같이 교육평가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지만 이 글은 이 연재의 취지에 맞게 수업평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그럼 교수의 수업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이 연재에 제시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기존의 외국의 방안들을 참고하며, 교육학 이론에 비추어 보아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다.

3. 교수 수업평가의 형식 및 내용

1) 평가의 형식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학기말 종강 또는 종업하는 시간의 말미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형편이다. 따라서 짝막한 시간에 1회 실시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 자신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꼭 학기말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도중에도 중도 점검을 위해 실시해 볼직하다. 사실 그렇게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더 나은 도리가 아닌가? 또한 어떤 학생들은 개인적

인 사감에 따라 교수의 수업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많은 학생에게서 또한 여러 학기에 걸쳐 얻어지는 반응이라면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지 또는 설문지의 형식은 대체로 양적인 집계를 위해 약간의 선다형 문항, 그리고 10여개의 평정(checklist) 문항을 섞은 객관식과 5개 정도의 내용 분석을 위한 서술형 문항인 주관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추세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20개 안팎의 문항으로서 대체로 학생들이 10분 내지 20분 안에 끝마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문항 형식을 도입하듯이 자신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겠다. 객관식 선다형의 경우는 OX 진위형, 3지 내지 4지 선다형이 모두 가능하다. 평정형 문항의 경우는 3단계, 5단계, 7단계 평정 등이 주로 쓰이고 있다. 주관식 서답형의 경우는 한두 마디의 단답형, 한두 줄의 서술형 외에 한 문단 이상의 자유반응형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을 적절히 가미하여 형편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 문항이 교육평가의 원리에 맞게

좀더 다듬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애매한 표현들은 반응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수업 과정상의 중요 문제와 관련되어 질문이 구성되어야 수업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평가 내용의 문제이므로 다음에 기술하기로 한다.

2) 평가의 내용

교수의 수업평가서의 내용은 대체로 구조화 되어 있기보다는(전남대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관련 문항을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 대체로 여러 가지 기존의 수업평가 방안에 교수 개인, 학과, 단과대학 또는 대학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평가서를 개발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를 좀더 구조화해 문항을 나열하고 제시했다면 사후 분석 및 해석에 좀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로 전남대 경영학과와 경우 수업주제에 관한 항목, 교재 및 부교재에 관한 항목, 수업 환경에 관한 항목, 시험·과제물 및 성적평가에 관한 항목, 교수의 수업에 관한 항목별로 상당히 짜임새있게 구조화하고 문항을 배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 교수이론 차원에서 논의되는 항목들을 추가했다면 좀더 나은 평가서가 되지 않았나 싶다.

수업평가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업중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수업 전·후에 해야 할 사항까지

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업과 관련된 수업계획, 동원될 매체, 교과 내용 및 목표달성, 교육 환경, 더 나아가 과제 및 평가방식, 학습 자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평가서에서 묻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항목별로 제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수업계획서에 관련된 사항
 - 계획서의 실질적 수업지침 여부
 - 교과의 전 과정에 대한 포괄성
 - 자세한 정도
- ② 교육목표에 관련된 사항
 - 교과 및 단원 목표 여부
 - 포괄적 구체적 목표의 병존
 - 목표의 학습평가시 반영도
- ③ 교과내용에 관련된 사항
 - 교과내용의 참신성
 - 교재의 적절성
 - 교과내용의 실용적 가치
- ④ 교수에 관련된 사항
 - 교수의 수업 준비도
 - 학생의 학습에 대한 조력 정도
 - 교수의 열성
- ⑤ 학생에 관련된 사항
 - 수업에 대한 참여도
 - 수업에 대한 준비도
 - 교과에 대한 학습시간 정도
- ⑥ 수업진행에 관련된 사항
 - 학습자의 사전학습 진단 여부
 - 학습 정도의 중도점검 여부

- 설명의 논리적 명쾌성
 - 수업의 융통성 내지 유연성
 - 교수법의 다양성
 - 학습자의 동기유발 방법
 - 교수 매체의 사용 여부
- ⑦ 학습과제에 관련된 사항
 - 과제의 양 및 빈도
 - 과제의 가치
 - 추후 피드백 여부
 - 과제의 성적 반영 적절성
 - ⑧ 참고문헌에 관련된 사항
 - 참고문헌의 지적 자극 정도
 - 참고문헌의 참신성
 - 참고문헌의 교과 및 수업 관련성
 - ⑨ 수업 환경에 관련된 사항
 - 교실의 조명 · 소음 · 청결 정도
 - 교실의 시설 · 설비 구비 정도
 - 교수 매체의 다양한 구비 정도
 - ⑩ 학습평가에 관련된 사항
 - 주요 수업내용의 반영도
 - 시험 후의 피드백 여부
 - 평가 문항의 명료성
 - 출제 방식의 다양성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교수의 수업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형편에 따라 또는 그 중요도의 판정 여부에 따라 교수 개인, 학과, 단과대 또는 대학 전체적으로 취사선택하여 평가분

항을 개발하고 이의 개선에 힘쓴다면 좋은 평가도구가 될 것이다.

4. 수업평가 실시 및 이용

1) 평가의 실시

일단 좋은 수업평가도구가 완성되면 이를 우선 예비적으로 실시해 보아야 한다. 예비 실시의 결과, 평가 문항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분석해 보고 애매한 표현, 반응의 중복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본다. 더 나아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남대 경영학과처럼) 고차원의 요인분석방법까지 동원하여 좀더 나은 평가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수업평가를 개인, 학과 수준에서 실시하던 단과대, 대학 전체 수준에서 실시하던 평가의 분위기는 진지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장난 삼아 반응하거나 형식적으로 반응하면 대학교육 개선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도입 단계에 있는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실시 의미가 없어진다. 고의적인 반응이나 무반응 등도 없도록 평가 실시 전에 충분한 의의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또한 평가서에는 교수가 좋은 반

음을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교수가 퇴실한 상황에서 또는 조교가 임석한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평가하게 해야 한다.

또한 평가도구는 하나만 개발하여 개인, 학과, 단과대 또는 대학 전체 수준에서 실시하기보다는 동일 요소를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로 다른 유형의 평가지를 만들어 실시해 보고 서로 다른 유형의 평가지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또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또는 교수의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 문항을 개발하거나 삼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평가 실시 결과, 학생들 스스로 또는 조교가 수합한 평가지는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평가가 끝날 때까지 교수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체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의해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평가가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교수 개인적으로 수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학습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수업평가는 한꺼번에 전 교수의 전 강좌에 대해 실시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희망하는 교수의 희망하는 교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 다음 학교 형편에 따라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 평가 결과는 교수 개인적으로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별, 단과대별, 또는 대학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수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분석결과를 극비에 부쳐 교수 개인적으로 통보하거나 교수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학과장, 학장 또는 총장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지 원본은 해당 교수에게 돌려주거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처분해야 한다.

2) 평가의 이용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도입단계에 있다. 잘만 실시하면 상당한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제 측면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한 다음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의 출발은 일차적으로 교수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집된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가 한 학기 수업을 하고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계획서대로 수업은 잘 진행되었는지, 교과의 목표는 잘 달성되었는지, 교과 내용은 충분히 다루었는지, 자신의 준비도는 배시간 어땠는지, 학생들의 태도는 어땠는지, 교수방법은 적절했는지,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 참고도서들은 정말 학습에 도움을 준 만큼 괜찮았는

지, 수업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학습 평가 방식은 적절했는지, 이 모두 교수의 궁금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학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학과장이나 단과대 학장이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국립대학은 금년부터 교수 연구비가 인상되면서 인상분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부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수업평가와 연구실적 평가를 근거로 교수평가제를 마련하여 연구비의 차등 지급 및 승진 등에 이용하려고 한다. 한편 사립대학에서는 교수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봉급 수준이 낮음에도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데 대해 벌써부터 교수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 연구비 차등 지급에 이를 이용한다면 출발부터 수업평가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사립학교법 때문에 위촉된 교수의 지위를 수업평가제로 더욱 통제하려고 한다면, 교수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개방화에 더욱 역행하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교수의 수업평가제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교수의 수업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교수평가제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교수들의 전체적인 함의를 얻은 다음 매우 조심스럽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의 수업평가제를 처음 출발시킨 미국의 대학들도 초기에는 대학 당국이 교수의 승진이나 봉급 결정에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교수들은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잘 보이려고 애쓴 경우도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사적인 감정 차원에서 학점 받기 어려운 과목의 교수에게는 안 좋은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아 지금은 대체로 대학 전체적으로 교수평가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고 하는 교수 개인별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과, 단과대 또는 대학본부는 이를 도와주는 처지이다.

한편, 학생들은 학생운동 차원에서 교수의 수업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동안 학생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수업에 아무런 의견 개진도 못하고 따라만 갔다. 비싼 등록금을 내놓고도 자신들의 수업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길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소위 교육을 잘 받을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시된 셈이다. 그러는 차에 수업평가제가 도입된다고

하니 학생운동권에서 이를 관장하려고 하는 대학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교수를 무능 교수로 공개하려 하는가?

그러나 교수평가제를 학생들이 관장하는 대학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어야 하듯 교수들의 수업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교수의 수업평가제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평가 결과를 퍼드백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교수 수업평가제의 취지이고 또 수업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학생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평가지에 개진하여 더 나은 수업에 의한 더 나은 학습이 되도록 해야지, 이를 무기로 교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대학교육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교과목의 평가 결과를 공부하지 않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학생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므로 교수 개인에게 또는 대학 당국에 그 뜻을 전하고 맡기는 것이 수업평가제의 성공적 도입의 지름길인 것이다.

5. 결 어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도입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될 추세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은 교수 개인의 수업 개선에 이용되고, 학과·단과대·대학본부는 이를 지원하는 처지에 있는데, 성급하게 그 결과를 교수평가나 교수봉제에 또는 교수들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수업평가제의 발명의 근거나 취지 또는 그 목적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오히려 대학교육의 본질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칠 뿐 아니라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함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도입의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수의 수업 개선에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에서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